

RaonAtti 8th in Thailand October Report

October report
Index
RaonAtti 8th in Thailand

Tree Nursery Center

350ppm street Campaign

Day camp

Asian RICE Project

Volunteering at the
organic village

350ppm bicycle Campaign

End Poverty Campaign

First Report Presentation

Etc



라운아띠 8기 태국팀 10월 일정표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Day off Meatless campaign	2 Volunteering Tree Nursery Center	3 Volunteering Tree Nursery Center	4 Volunteering Tree Nursery Center	5 preparing for 350ppm campaign	6 Volunteering program WITH 350ppm.campaign
7 Day off	8 Day camp Meatless campaign	9 Day Camp	10 Day Camp	11 Day Camp	12 Day Camp	13 Volunteering program WITH YMCA
14 Day off	15 Day camp Meatless campaign	16 RICE project 3 rd workshop	17 RICE project 3 rd workshop	18 RICE project 3 rd workshop	19 RICE project 3 rd workshop	20 Volunteering program WITH YMCA
21 Day off	22 Visit organic village Meatless campaign	23 Volunteering at the organic village	24 Volunteering at the organic village	25 Volunteering at the organic village	26 Volunteering at the organic village	27 Back to the YMCA
28 Day off	29 Thai class preparing the report visit doistep	30 preparing the report	31 1 st Report for YMCA			



첫 번째
Tree Nursery Center

태국의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Tree Nursery Center 태국의 자연을 느끼다.



10월 2일부터 4일까지 Tree nursery center에서 봉사자로서 일을 했어요. Tree nursery center는 태국 정부기관으로 실용적인 나무나 식물을 길러내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과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 등을 하는 곳입니다.



Tree Nursery Center
태국의 자연을 느끼다.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종류의 나무, 약초, 씨앗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어요. 또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을 듣고 태국정부가 농업을 장려하고 국민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Tree Nursery Center 태국의 자연을 느끼다.



우리가 주로 한 일은 새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초를 뽑는 기초적인 일이었지만,
이 활동을 통해 작물을 키우는데 드는 수고를 직접 느낄 수 있었고, 이런 작은
활동이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국팀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350ppm Campaign

산캠페인 워킹스트리트 위에서 지구를 위한 약속을.

YMCA





350ppm Campaign

작은 약속 하나하나가 모아지면



지구를 위한 , 우리의 인생을 위한 350ppm 약속 나무 세 그루!



350ppm Campaign 작은 약속 하나하나가 모아지면



저희는 10월 6일 하루 동안 산캄펑 YMCA와 Walking Street에서 350ppm 캠페인을 했어요. 큰 보드에 350ppm이라고 적힌 나무 세 그루를 만들었고, 그 보드에 사람들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자신의 약속을 적은 색종이를 붙이는 캠페인이었습니다. 비가 올 것만 같은 날씨여서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지 않았고, 처음 시작할 때 생각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아 당황했지만, YMCA 선생님인 Eak과 YMCA에서 일하는 P'xing의 도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350ppm Campaign 작은 약속 하나하나가 모아지면



그리고 이 캠페인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캠페인을 준비할 때는 언어가 중요해서 함께 진행하며 도움을 받을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태국 친구들이 시험기간이라 힘든 상황이어서 고민하던 차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 명이 선뜻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캠페인의 경험이 많은 친구는 캠페인을 진행할 때 유의점, 자기만의 팁을 알려주면서 열심히 도와주었고, 그 덕분에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350ppm Campaign 작은 약속 하나하나가 모아지면



다행히 우리가 만든 피켓이 거리에서 눈에 잘 띄어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다음에 캠페인을 진행할 때도 사람들의 눈길을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지요. 또, 이 캠페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지속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어요.



350ppm Campaign

작은 약속 하나하나가 모아지면





세 번째
Day Camp

학교로 가기 전, 선생님이 되기 위한 연습



Day Camp 선생님이 되기 전 연습, 또 연습



DAY 캠프는 아이들의 방학기간 동안 YMCA에서 여는 교육프로그램이이에요. 우리는 종이 가면 만들기, 한국어, 노래, 미술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참여했던 주말클래스는 시간이 짧고 매번 다른 아이들을 가르쳐야 해서 지속적인 수업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데이캠프는 매일 같은 아이들과 지속적인 수업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앞으로 홈스테이 마을에 가서 할 학교에서의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Day Camp 선생님이 되기 전 연습, 또 연습



처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과 함께 달리고 구르며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인지 수업에 들어가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히 선을 유지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ASIAN RICE Project workshop이라는 새로운 스케줄이 생겨 데이캠프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활동이었습니다.



네 번째
Asian Rice project

환경과 교육을 고민하는 아시아의 선생님들과 함께



Asian Rice project 환경과 교육, 그리고 아시아

RICE Project 3rd Workshop

	16 th	17 th	18 th	19 th
오전	-개회식 -나라별 1년 활동보고	-한국팀 Presentation (태양열 LED전구) -교육프로그램 (솔라오븐 체험 허브약제 만들기 에너지 교육)	-Bio Gas (Bio Gas 소개 및 Bio Gas 탱크 만들기)	-향후 방향 논의 -수료증 수여
	Santhitam YMCA호텔	Saohin YMCA	Chiang mai 대학	Santhitam YMCA 호텔
점심				
오후	-강연 (로버트 스틸)	-산파통 secondary school (Energy 체험활동) -왕립 공원 방문	-공과대학 강연 (왓쌍 교수님)	
	Santhitam YMCA호텔		Chiang mai 대학	
저녁			-Good Bye Party (Culture Exchange)	



Asian Rice project 환경과 교육, 그리고 아시아



10월 16일에서 19일까지 4일간 저희는 3번째 RICE Project workshop에 참가했어요.
갑작스럽게 참여하게 되어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Asian Rice project 환경과 교육, 그리고 아시아



RICE Project Workshop은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인 한국, 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미얀마, 네팔의 사람들이 모여 환경과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와 활동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교류하는 자리였어요. 지금까지는 태국과 한국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배워왔다면 이번에는 더 범위를 넓혀 아시아의 다양한 나라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어 정말 좋았어요.



Asian Rice project 환경과 교육, 그리고 아시아



모든 시간이 영어로 진행돼서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이전에 사오힌에서 배웠던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었고 다른 아시아의 국가들이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배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만나 나이,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함께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었어요.



Asian Rice project 환경과 교육, 그리고 아시아



A serene sunset scene with a bright sun low on the horizon, casting a golden glow over a field. In the foreground, a single stalk of grass with its seed heads is silhouetted against the sky. The background shows a soft, hazy landscape.

다섯 번째
organic village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을까?



Organic Village

람팡의 나파우끼우 마을

Organic Village Schedule

	22th	23th	24th	25th	26th	27th
오전	-마을도착 (라온아띠 소개, 가족들과의 첫만남)	-불교문화 체험 -Organic 체험 (전통간식 만들기)	-Organic 체험 (대나무 숯 만들기)	-Organic 체험 (허브 스프레이 만들기)	-Organic 체험 (유기농채소 및 주스 판매) -End poverty 캠페인	☎ Come back YMCA Sankhamp eang
점심		-태국음식 만들기		-태국음식 만들기		
오후		-Organic 체험 (전통간식 만들기)	-Organic 체험 (대나무 숯 만들기)	-Organic 체험 (과일주스 만들기, 전통차 만들기)	-Organic 체험 (유기농채소 및 주스 판매) -End poverty 캠페인	
저녁		-한국어 수업1 (“안녕”노래, 한국어로 이름쓰기, 자기소개)	-한국어 수업2 (숫자, 나이 말하기, 한국 동요-곰 세마리-)	-한국어 수업3 (인칭, 가족, 생활언어, 동요-머리,어깨,무릎,발-)	-한국어 수업4 (복습) -작별의 밤	



Organic Village 삶 속의 '유기농'



저희는 10월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람팡, '나파우끼유 마을'에서 지냈습니다. 이 마을은 자체적인 유기농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오가닉팜이기도 하고 저희 코디네이터인 P'Yo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에요. 이곳에서 느낀 점은 환경과 절약을 위한 노력이 마을주민들의 삶에 베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로, 물을 사용할 때엔 보통 바가지에 받아서 사용을 하고, 기름이 묻지 않은 접시는 그냥 물로 헹궈내요. 그리고 남은 물은 집에 키우는 식물에게 뿌려요. 남은 음식물의 경우에는 바이오 가스나 가축들의 식량으로 쓰여요. 또한, 언플러그와 절전을 잘 실천하고 자전거력을 이용해 강물을 끌어올리는 등의 에너지 절약도 생활화 되어있답니다.



Organic Village 삶 속의 '유기농'



또 집집마다 텃밭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놀라웠어요. 웬만한 과일이나 채소는 사지 않고 집에서 기르는 것들로 요리하고, 아플 때에도 이런 식물들을 통한 민간요법으로 대체하는 등의 자급자족의 형태가 일상화 되어있었어요. 또한, 대나무와 바나나 잎과 같은 자연물을 이용해 포장을 하고 있어요.



Organic Village 삶 속의 '유기농'



이 마을의 유통구조는 뛰어나합니다. 매깨우의 집(남짜이 가족)이나 피요의 집으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채소들을 가지고 가서 팔면 모인 작물을 퍼 깨우와 피요의 누나인 피룽이 시장과 병원으로 가지고 가요. 정말 간단하고 합리적인 유통구조예요. 이번 기회에 메조 대학교와 치앙마이 대학교에서 농업 교육과 사회발전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오가닉 마켓에서 제품이 직접 판매되는 것을 보았을 때 파악하지 못했던 연결점을 조금이나마 이해한 것 같아 좋았어요.



Organic Village 삶 속의 '유기농'



디저트나 스프레이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을 통해 직접 경험해보기도 했구요. 간단한 유통구조와 유기농을 통해서 농가의 빚을 줄이고 농민들의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일 등을 통해서 마을을 발전시키는 아직은 어려운 개념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두 달동안 다른 오가닉팜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파우끼유' 빌리지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잘 적응해나가려고 해요.



Organic Village 안녕하세요 선생님!



23일부터 26일까지 매일 오후에는 한국어 수업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왔고 심지어는 다른 마을의 아이들까지 왔어요. 그리고 마을의 아주머니도!! 4일 동안 인사, 자기소개, 숫자, 안부 묻기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언어와 노래, 율동을 가르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이 우리가 가르쳐준 것을 마을에서 말하고 다니고 우리를 좋아해줘서 정말 뿌듯했어요. 아이들과 정이 들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이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 수업 또한 학교에서 할 활동에 대한 연습이 될 수 있었어요.



Organic Village 태국의 불교문화

이 곳에서 지내면서 동요나 전통민요, 금기사항, 전통음식이나 간식, 주스를 만드는 등 태국의 문화에 대해 배운 것이 많아요. 특히, 저희가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기 전 학교에서 아이들이 모여 태국의 전통춤 (람타이)를 배우며 아이들과 문화를 공유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또 아침이면 가족들과 함께 태국의 불교문화를 체험하기도 했어요. 스님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맨발로 걸어가 가지고 온 음식과 물을 시주하고 그 후에는 무릎을 꿇고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한국의 문화와도 다르고 산캄팡과도 다른 듯한 이 곳의 불교문화에 놀랐어요.





Organic Village
가족! 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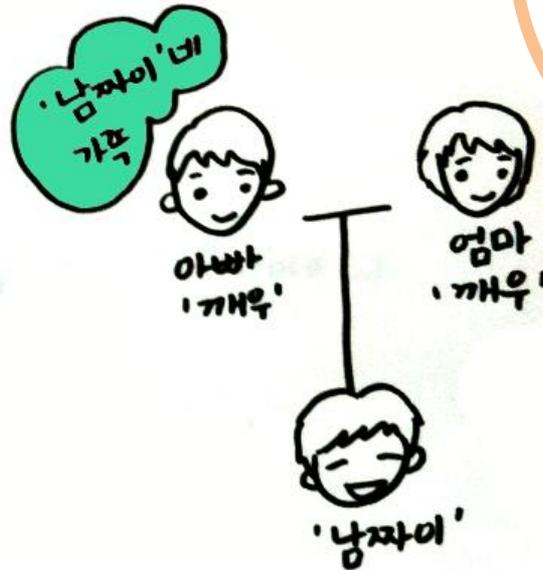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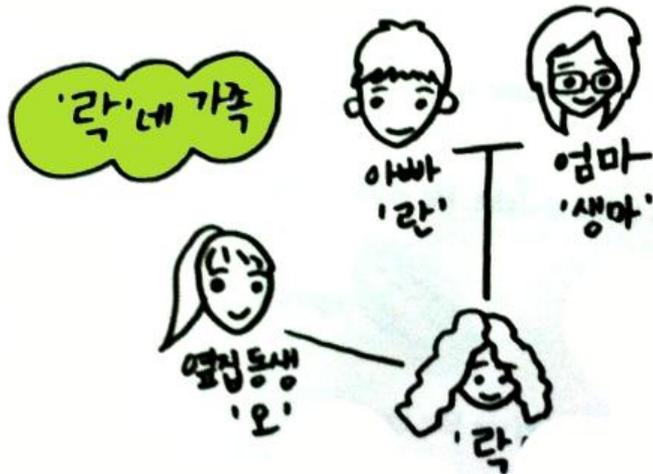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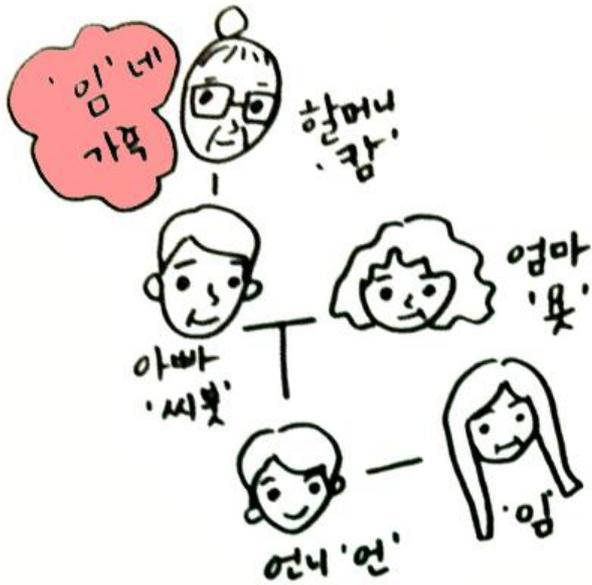


일주일 동안 함께한, 잊지 못할 가족들





Organic Village 가족! 될 수 있어요.



일주일은
함께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가족이 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350ppm bicycle Campaign

Save the Earth, Save our Life



350 Bicycle Campaign

지구도, 나도 지켜주는 자전거



※ 잠시 다녀가신
나그네1호 2호 분들께서
아띠 가내수공업공장의
350ppm 배너 만들기에
재능을 기부해주셨습니다.

새로 태어난 페 현수막,
너무 예쁘죠?





350 Bicycle Campaign 지구도, 나도 지켜주는 자전거



자전거를 타고 동네 산책을 시작하면서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 했던 자전거 타기 캠페인. 처음에는 우리의 자전거에 ‘350ppm’과
‘save the earth’라고 적혀있는 우리가 만든 깃발을 달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었지만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배너를 만들어 사람들의 자전거에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350 Bicycle Campaign

지구도, 나도 지켜주는 자전거



폐 현수막을 잘라 배너를 만들었고 만든 배너를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집에 찾아가 자전거에 배너를 달았습니다. 이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마을 분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마을 분들과 만나고 대화를 하고 가까워질 수 있어서 더욱 좋았어요.



350 Bicycle Campaign

지구도, 나도 지켜주는 자전거





350 Bicycle Campaign 산감팽 학교 친구들과 함께



지난 29일은 우리 SKP YMCA와 가까운 곳에 있는 산감팽 고등학교의 Sport day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프닝 전날, 우리는 자전거를 빌리러 온 학생들과 얘기하여,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350ppm 자전거 캠페인과 스포츠데이 행사를 결합해 환경을 보호하자는 의미의 퍼레이드를 하기로 했습니다. :)





350 Bicycle Campaign 산캠팽 학교 친구들과 함께



이 퍼레이드는 5개의 팀으로 나뉜 학생들이 팀 별로 환경, ASEAN, 우주 등의 주제를 가지고 주제에 걸맞은 분장과, 소품 등을 사용하여 산캠팽 일대를 걸으며 진행되었습니다. 이 퍼레이드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에게서 수업이나 캠페인에서 응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와 에너지도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의 정식적인 스케줄을 아니었지만 학생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준 좋은 기회였습니다.



350 Bicycle Campaign 산감팽 학교 친구들과 함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국에선 이런
풍경을 보기 힘들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학생들이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50 Bicycle Campaign 산감팽 학교 친구들과 함께



A photograph of a street scene at dusk. In the foreground, a young girl in a red t-shirt and blue shorts is smiling. Behind her, a crowd of people is gathered around a campaign booth. Two men are looking at a large poster on the booth. The booth has a blue background with pink puzzle pieces and a white sign with Thai text. The sky is a mix of blue and orange from the setting sun. Power lines and buildings are visible in the background.

일곱 번째
End Poverty Campaign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빈곤 퇴치





End Poverty Campaign 빈곤을 줄이기 위한 현명한 소비



26일부터 28일까지 총 3일간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개의 보드를 캠페인에 사용했는데 태국어로 빈곤의 개념이 적혀있는 보드 하나와 일상생활에서 현명한 소비를 위해 줄여야 할 행동 6가지를 퍼즐모양으로 만든 보드를 만들고, 퍼즐모양을 떼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사람들이 퍼즐을 떼어냈을 때 그 행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그림으로 붙여놓았습니다.



End Poverty Campaign 빈곤을 줄이기 위한 현명한 소비



비록 큰 퍼포먼스는 없었지만, 람팡 시티 홀, walking street 그리고 산캄펑 YMCA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현명한 소비'에 대한 것들을 전달했어요. 원래는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나파우끼우 마을에서 캠페인을 하려고 했지만 그 마을은 Organic village로 많은 분들이 현명하게 소비를 하고 계셔서 마을 밖으로 나와 도회지에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참여했던 분들이 저희의 의도를 확실하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퍼즐을 떼어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서도 지속적으로 빈곤퇴치 캠페인을 할 생각입니다.

Peace for ALL

여덟 번째 First Report in Thailand

산캄팽 YMCA에서의 중간평가





First Report Presentation 2달간의 활동 보고, 그리고 피드백



10월의 마지막 날, 태국에서 한 지금까지의 활동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P'Pare, P'Mom, P'Yo, P'Ppiyac, Mr.Norman, 그리고 '공감만세'의 이민아님,
이렇게 6명에게 하는 조출한 발표였지만
저희에게는 지난 두 달 동안 있었던 일과 활동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어서 좋았어요.



아홉 번째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Q. 가장 좋았던 활동과 이유는 뭔가요?

Rak - 저는 램팡에서의 기억이 가장 좋았어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따뜻한 가족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떠나기 전 엄마가 자기를 보고 싶으면 보라고 팔목에 걸어주었던 팔찌 그리고 눈에 고인 눈물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Namchai - YMCA와 Lampang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비록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눈을 빛내며 열심히 따라준 아이들의 의지가 정말 와 닿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학교에서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Yim - 저도 역시 Lampang에서 태국에 오기 전에는 새로운 만남과 이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해봤어요. 그래서 처음 맞은 이별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라온아띠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모자랐었는데 이번 기회로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Sandii - 저도 Lampang에서의 홈스테이가 가장 기억이 남아요.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낯선 이방인인 저를 아들과 같이 대해주신 엄마와 저를 가만히 있게 두지 않았던 동생...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두 달 동안의 홈스테이가 더욱 기대됩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Q. 이제 곧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데 느낌이 어떤가요?
그리고 마을에서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Rak - 저는요. 또다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새롭게 다가올 모든 것들이 너무 기대가 되요.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마을에 가면 아이들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마을을 꾸미는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Namchai - 환경이 바뀌게 되어서 불안하고 앞으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Lampang에서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기대도 많이 됩니다. 학생들과 재미있게 뒹굴며 놀고 싶어요.

Yim -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발전해 나갈 것이 기대가 되요. 그리고 그만큼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계획은 제가 홈스테이 할 곳이 기숙사인데 그곳에 사는 아이들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들과 지내면서 저도 같이 발전하고 싶어요.

Sandii - 두 달 동안 지냈던 산캄팽을 떠나 새로운 곳에 있을 만남이 기대가 됩니다. 또 학교가면 아이들과 운동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저는 마을에 가서 지도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Q.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각오 한마디!

Rak - 뭐든지 내 손으로 시도하기. 경험하기. 뛰어들기.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Namchai- 지금의 나 자신이 처음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성장했는지 감이 잡히지 않지만 나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서 역시 한 발자국이라도 더 성장해서 돌아오겠습니다.

Yim - 이 곳에 적응해가면서 자꾸 게을러지는 저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초심을 잃지 않도록 매일매일을 새롭게 살도록 노력할거예요!

Sandii - 이제까지 여기에서 살면서 많은 것들을 지나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것들을 보도록 노력할겁니다.

A photograph of four young people (two men and two women) sitting on a stone railing on a hillside. They are all smiling and giving thumbs up. The background shows a cityscape under a clear blue sky with some purple flowers hanging from a tree in the foreground. A semi-transparent dark grey box is overlaid on the center of the image, containing the text.

열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인디낙낙짜오!



다음달부터는 '산파양' 마을에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기대해주세요 ☺